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楸泰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중앙회 2019년도 제2차 회장단회의 개최

총회에서 위임받은 정관개정(안) 심의 및 가결

종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사항 강화, 이사회 조직 정비를 통한 실질적인 운영방안 모색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 강구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5월 16일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추태회장을 비롯 선교, 승남감사와 연동, 동수, 태락, 상기부회장 등 30명에 이르는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개정조문을 확정 승인하였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장단에 감사의 전하고 무궁왕릉의 수호보전, 뿌리공원 내 조형물 개수추진 등 주요종사 추진현황을 설명한 후 경제적인 상황과 제반 여건 등 추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성취토록 함에 회장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홍보, 독려를 당부하는 한편 정관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사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에 성원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하였다.

5월 16일부로 개정 시행된 정관 조문은 종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임원 및 대의원의 정비, 조직 정비를 통해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운영의 활성화, 재원 조달에 관한 기여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문 2면 별항)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태중앙종친회장

뿌리공원 조형물 개수사업 착수

오는 9월 28일 효문화뿌리축제일에 제막식 행사

대전광역시 중구소재 뿌리공원 내 37번 구역에 조성된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수(改整) 조성된다.
 1997년도에 조성된 현재의 조형물은 2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경과로 노후화 되고 최근 조성된 타 성씨 조형물에 대비되어 규모가 왜소하며 청주한문을 상징하는 조형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다수 일가분들의 평가와 의견이 있었다.
 추태중앙회장의 공약 추진사업으로 금번에 새로이 조성되는 조형물은 최대 규격 기준으로 화강석과 오석을 재질로

하여 오는 9월 28일 효문화축제일정에 맞춰 완공과 제막을 목표로 국내 유수의 조형물을 제작 시공한 CH조형연구소(대표 천종권)에서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송조의 의미를 형상화한 본 작품은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접수된 6건 중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이다. 시조부군의 음덕으로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 조형물은 시조묘역으로 이전하여 기록으로 보존 전시할 계획이다.
 세계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공원이며 도심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忠孝)의 산 교육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125,000m²의 면적에 244개의 성씨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성씨문중에서 기증한 족보 등 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한국족보박



청주한씨조형물 모형도

물관은 조상의 얼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종친 간의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정관 개정 신 · 구조문 대조표

구 (현행)	신 (개정)	비고
第8條 (權利) 本會의 宗員은 本 定款의 定하는 바에 따라 宗事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9條 (義務) 本會의 宗員은 다음 各 號의 義務를 진다. 1. 定款 및 諸 規程의 遵守 2. 總會와 理事會 決議事項의 履行 3. 宗費 및 諸 負擔金의 納付		
第10條 (懲戒) ① 本會의 宗員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會長은 會長團會議에 回附하여 決議를 거친 후 懲戒할 수 있다. ('09.06.03. 개정) 1. 第9條의 義務를 不이행한 者 2. 本會의 名譽를 毀損한 者 3. 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者 4. 本會에 財政的인 損失을 끼친 者 5. 本會 會員 相互 間의 親睦을 毀損한 者 ② 懲戒의 種類는 別途의 懲戒規程으로 定한다.	第10條 (懲戒) ① 本會의 宗員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會長은 會長團會議에 回附하여 決議를 거친 후 懲戒할 수 있다. ('09.06.03. 개정) 1. 第9條의 義務를 不이행한 者 2. 本會의 名譽를 毀損한 者 3. 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者 4. 本會에 財政的인 損失을 끼친 者 5. 本會 會員 相互 間의 親睦을 毀損한 者 ② 懲戒의 種類는 別途의 懲戒規程으로 定한다. ③ 제9조 (의무) 3항을 2회계 년도 이상 미 이행한 자는 징계절차 없이 제8조의 권리가 소멸된다.	③항 신설
第11條 (任員) 本會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當然職 始祖太尉公宗中 門長 및 理事長) 2. 副會長 80人 (當然職 理事: 수석副會長 1人, 宗派會長 39人, 廣域市道會長 17人, 專擔부회장 10人, 其他 13人) - (2015. 12. 29. 改正)	第11條 (任員) 本會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當然職 始祖太尉公宗中 門長)	이사장 삭제
第11條 (任員) 3. 運營委員 350人 이내 (當然職 理事) (2015. 12. 29. 改正)	第11條 (任員) 3. 運營委員 350人 이내. 이사를 겸하지 않는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당연직 이사 삭제 조항 신설 삽입
第11條 (任員) 4. 理事 100人 이내 (宗派 1인, 廣域市道 各 1人, 市郡區 各 3人, 專擔 부회장 각 1인, 其他 34人) (2015. 12. 29. 改正)	第11條 (任員) 4. 겸임이사 60인 이내 겸임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종파, 광역 시도, 시군구에서 40인, 기타 20인	이사 삭제 및 운영위원 통합, 겸임이사 60인 이 내로 조항 변경
第11條 (任員) 5. 監事 2人 (2009. 06. 03. 改正)		
第12條 (選出) 本會의 任員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總會에서 選出한다. 2. 수석副會長: 수석부회장과 전담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 한다. (2015. 12. 29. 개정) 3. 副會長: 各 宗派會長 및 廣域市道會長과 在외국 宗派會長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2015. 12. 29. 개정) 4. 運營委員: 회장의 지명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각 종파지문중회장과 각 市郡區 會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2015. 12. 29. 개정) 5. 常任理事: 삭제. (2015. 12. 29. 개정)	2. 수석副會長: 수석부회장과 전담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 임명 총회 보고
第12條 (選出) 6. 理事: 宗派會長 및 地方會長과 전담부회장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認准한다. (2015. 12. 29. 개정) 7. 監事: 總會에서 直接 選出한다.	6. 겸임이사: 겸임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종파회장 및 지방회장과 전담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 폐지 겸임이사 조항 신설 연회비 20만원
第19條 (理事) 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會의 宗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한다.	第19條 (理事) 당연직 이사와 겸임이사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會의 宗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한다.	이사 → 겸임이사
第20條 (監事) 監事는 本會의 財政 等 運營에 關한 事項을 必要에 따라 監査하고 이를 總會 및 理事會에 報告하며 事案에 따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0條 (監事) 監事는 本會의 財政 等 運營에 關한 事項을 必要에 따라 監査하고 이를 總會 및 理事會에 報告하며 事案에 따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단, 의견권은 없다.	감사의 의견권 제한
第21條 (構成) 總會는 代議員 總會로 하되 元老, 顧問, 諮問委員, 會長, 副會長, 運營委員, 理事를 當然職代議員으로 한다. ('09. 06. 03. 개정)	第21條 (構成) 總會는 代議員 總會로 하되 元老, 顧問, 諮問委員, 會長, 副會長, 運營委員, 겸임理事를 當然職代議員으로 한다.	이사 → 겸임이사
회장단회 第27條 (附議事項) 會長團會議은 總會에서 委任받은 다음 事項을 審議處理한다. (2009. 06. 03. 改正) 1.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顧問 推戴에 關한 事項 4. 宗員 懲戒에 關한 事項 5.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第27條 (附議事項) 會長團會議은 다음 事項을 審議 處理한다. 1.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 2.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사항 3. 顧問 推戴에 關한 事項 4. 宗員 懲戒에 關한 事項 5. 상훈에 관한 사항 6.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삭제 이사회 및 총회: 종파가능 삭제 및 조정 사업계획 · 예산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이사회 第28條 (構成)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顧問도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28條 (構成)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단, 겸임이사에 선임되지 않은 운영위원은 제외되며 고문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운영위원 중 겸임이사 미 선임자 제외 (대의원)
第29條 (理事會 召集 等) 理事會는 理事 3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 (2015. 12. 29. 改正)	第29條 (理事會 召集 等) 理事會는 理事 3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 단, 본회 정관 제9조 (의무)를 해태한 임원은 소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삽입 의무 해태자 제한
第38條 (機構) ① 本會를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爲하여 宗務를 處理할 事務處를 두고 事務處에 企劃室, 總務部, 組織部, 財政部, 祭典部, 教育部, 涉外部, 弘報部, 電算部, 靑壯年部, 婦女部를 둔다. (2011. 03. 23. 改正) ② 事務處長은 수석부회장을 當然職으로 하고 各 室, 部長은 理事 中에서 會長이 任免하되 總務, 祿部, 財政계擔當은 常勤으로 하고 其外 室, 部長은 非常勤으로 한다. 단, 業務運營上 必要한 경우는 최소의 定員 內에서 常勤職員을 追加 任命할 수 있다 (2015. 12. 29. 개정) ③ 中央會의 수석부회장은 (財)淸韓獎學會의 常任理事를 兼職한다. (2015. 12. 29. 개정) ④ 中央會의 事務處 職員은 (財)淸韓獎學會의 業務를 支援한다. ⑤ 常勤任員 및 職員은 豫算範圍 內에서 報酬, 旅費 또는 車馬費 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⑥ 事務處의 常勤職員에 대하여는 正當한 理由 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其他 懲罰을 하지 못한다. (2008. 2. 28. 개정)	③항 삭제	
보칙 第41條 (規程) ① 本會의 運營상 宗報, 祭典, 組織, 文化, 財政, 宗事紛爭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委員會등을 設置 運營할 수 있다. (2011. 03. 23. 改正) ② 本 定款 第5조 6호의 規定에 의거 獎學事業의 活性化를 爲하여 獎學 財團과 獎學財團 後援會 組織을 構成할 수 있으며 運營에 關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단, 獎學財團 組織 內에 별도의 單位獎學會를 構成할 수 있다. (2011. 03. 23. 改正) ③ 單位獎學會는 獎學金 五千萬元 以上 出捐者로 構成하고 (2013. 01. 15. 개정) 出捐基金에서 發生되는 果實金額은 財團 運營經費를 差減한 후 單位獎學會에 귀속토록 하여 獎學生 推薦 및 獎學證書(金)를 授與할 수 있도록 한다. (2011. 03. 23. 改正) ④ 單位獎學會長은 獎學會 理事會 會議에 參席할 수 있다.	④ 單位獎學會長은 장학재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사전 협의 후 獎學會 理事會에 參席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第1條 (施行) 本會의 定款은 2019年 5月 16日 개정 施行한다.	

익산 쌍릉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한의 무강왕과 왕비릉이다」라고 역사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太原鮮于氏 · 淸州韓氏 · 幸州奇氏의 조상

■ 사적(史蹟)으로 고찰하면

• 고려사절요 24권 충숙왕 16년 3월에 금마군에 있는 마한 조상 호강왕(무강왕)의 릉을 파헤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마한 무강왕이 주인공임이 틀림없는 정사(正史)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 고려사에서도 익산 쌍릉은 무강왕과 그 비의 릉이라고 했으며, 무강왕의 세보에서도 복원(태원)선우씨, 상당(청주)한씨, 덕양(행주)기씨의 시조가 분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실학자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서 무강왕은 조선왕 기준이며,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으로 옮겨 금마(지금의 익산)에 마한국을 세웠고

• 삼국유사 마한편에도 위만이 조선을 치니 조선왕 준이 궁인과 좌우의 가까운 신하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한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니 마한이라 하였고

• 여지승람에는 세상에 전하기를 무강왕은 이미 인심을 얻어 마한에 나라를 세우고 선화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거동하였다. 또 두 능이 오금사봉 서쪽 수백 보 거리에 있는데 후조선 무강왕과 왕비의 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그밖에도 고려사지리지 후한서 권람의 응세시주 정다산의 아방강역고 등 여러 사서에도 금마는 기준이 남천한 곳이며 후마한의 옛도읍지임을 밝히고 있는 등 익산 쌍릉의 주인공은 무강왕과 그의 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역사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쌍릉 위성 촬영 전경

(출처:문화재청)

• 이렇듯 역사적 사실은 익산 쌍릉이 무강왕과 그 왕비의 릉이다.

■ 역사 왜곡 징후

• 근래에 와서 익산 쌍릉의 대왕릉을 무왕릉으로, 소왕릉을 선화공주 또는 사택왕후의 릉으로 역사기록과는 배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 익산 대왕릉은 일제강점기(1917년) 일본학자에 의해 발굴되었지만 내부 유물은 이미 대부분 도굴된 상태였고 2018년 재발굴 때 유골함과 부스러진 뼈조각이 네모난 관 받침대 돌위에서 발견되었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익산 쌍릉 보고서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수집된 목관에 서 발견되었다는 치아 4점이 20~40대 여

성의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한편 소왕릉을 무왕릉, 대왕릉을 사택왕후의 릉으로 설정하는 견해 등 대왕릉 발굴에 대한 불신과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 더욱이 일제강점기에 발굴한 대왕릉을 토대로 한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백제 무왕에 초점을 맞춘 발굴이라는 의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역사발굴정책을 획책한 일본의 대왕릉 발굴기록은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다.

• 따라서 마한 태조 무강왕의 후손들은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시행하는 익산의 소왕릉 발굴조사에 많은 의심과 함께 역사기록에 배치되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있다.

■ 한국 본원사상의 권위자인 제주대학교 안창범 명예교수의 “익산 미륵사의 창건주체는 후마한의 무강왕과 선화부인이다”라는 기고문을 요약 기술하면

1. 익산의 금마는 후마한의 옛수도였다.
2. 익산의 미륵사는 후마한의 무강왕이 창건한 절이다.
3. 부여의 미륵사(왕흥사)는 삼국시대 백제 무왕이 창건한 절이다.
4. 백제에 전백제, 후백제가 있었다.
5. 마한의 무강왕과 삼국 백제의 무왕은 별개의 인물이다.
6. 선화부인은 무왕의 부인이 아니라 무강왕의 부인이다.
7.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쌍릉은 무왕과 황후의 릉이 아니라 무강왕과 선화부인의 릉이다.
8. 태고시대의 우리나라에 불교인 천교가 있었다.

■ 이와 같이 여러 정사를 종합해 볼 때 “익산 쌍릉은 무강왕과 그 왕비릉”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역사의 기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한태조 무강왕 후손들은 역사의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

마한태조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한태락

무강왕릉 수호보전 추진기금 모금에 많은 동참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국민은행 009902-04-323878
예금주: 한추태

조상의 뿌리를 찾기 위해 방문한 재일교포 한헌찬일가

청주시청 직원의 친절하 봉사에 감사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한헌찬(57세·사진좌측)일가는 지난 5월 말경

조상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일주일간 청주로 여행을 하였고 안내를 받기위해 시청

을 방문했다.

일본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중 마침 민원발급을 위해 민원과를 방문한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사진중앙)의 통역과 응대를 통해 민원과 권경숙주무관은 청주한씨종중 한창하관리인(사진우측)에게 즉시 연락을 했고, 관리인은 직접 시청까지 와서 한헌찬교포와 동행하며 가산리소재 시조부군의 묘역과 재실, 청주의 무농정과 방정 등 종중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직접 안내 줄 수 있었다.

재일교포 한헌찬일가는 “친절히 응대해 준 이미호과장과 민원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청주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으며, 시 관계자는 “조상의 뿌리를 찾기 위해 방문한 재일교포에게 도움을 드린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하였다. /한국공보뉴스 청주취재보도국 기사 인용

중앙총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 · 헌성금 · 종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족보구입 · 수단금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장학기금 출연
국민은행 009-25-0015-377
재단법인청한장학회

◎ 무강왕릉 수호기금
국민은행 009902-04-323878
한추태

한학자가정연합총재 뿌리공원 조형물 건립기금 5천만원 기탁

추태회장의 협찬요청에 이기성회장이 큰 역할로 기여



문선명 · 한학자 총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총재께서 지난 6월 대전뿌리공원에 새롭게 조성되는 청주한씨 조형물 개수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중앙종친회(회장 추태)에 기탁 전달하였다.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뿌리공원의 조형물 개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으로 고심하던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추태회장, 이기성 회장

중 가평군 설악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수차 방문하였고 한국대표이신 이기성회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정연합의 비전은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이기성회장은 가정연합의 주요현안과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로 한학자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핵심 참모로서 금번 조형물 건립기금 기탁결정에도 크게 기여를 해주신 공로자이다.

금번 건립기금 기탁금 전달행사에는 평화대사 분당구 이동규지부장과 이영진목사, 이상인씨, 유한섭씨, 김인숙씨와 한동역일가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축하하였다.



조형물 건립기금 전달식 후 기념 촬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 한학자 총재

문선명총재는 舊소련 고로바초프대통령을 만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와해를 시도했고, 북한 김일성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담판 지으셨다.

미국에 가서 소방수 역할을 하며 세계의 분쟁을 막는 일에 골몰하셨다. 팔레스타인지역에 들어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평화행진을 벌이셨고, 200여개 국가를 돌아다니며 평화만을 부르짖으셨다.

한국과 미국 심지어는 북한에서 여러차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다. 2008년 여름 청평에서 부부가 탑승한 헬기가 사고로 추락하였으나 두 분 모두 다치신 곳이 없었다.

문선명총재는 1920년 평안도 정주군 덕안면에서 부친 문경유씨와 모친 김경예씨의 둘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전남 나주 옆 남평 문정흠씨 증손이다.

중앙대학교 사대부고와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60년 평남 안주에서 청주한문의 한학자총재와 결혼하였다. 2012년 별세(향년 93세) (추태중앙회장)

충정공(忠靖公) 탄신제(誕辰祭)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忠靖公[諱 應寅]派宗會는 지난 5월8일(음 4월 4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소재 충정공 묘사(廟祠)에서, 농번기로 바

쁜 시기임에도 3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정공 탄신(誕辰) 제465주년 봉제사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춘희회장, 아헌관에 상필일가(경기 하남시), 종헌관에 철수일가(서울시 흥제동), 축관에 상천일가(수원시)가 분방되었으며 상길총무(수원시)의 집례로 탄신제를 봉행하였다.

충정공(명종 9년, 1554~광해군 6년, 1614)은 선조 때의 문신이요 원훈(元勳)으로 선조 9년(1576)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팔도도순찰사, 6조 판서(이조, 예조, 호조, 공조, 병조, 형조)를 역임하시는(호조판서는 후에 또다시 2번이나 역임)등 조선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기록을 남기셨으며, 1606년 10월에 우의정에 올랐다.

또한 중국어에 능통하여 지금의 북경을 4회에 걸쳐 주청사 서장관(書狀官)으로 또는 진주정사(陣奏正使)로 다녀오시었으며, 임진왜란 때 요동에 건너가 이어송장군을 유창한 중국어로 설득시켜 5~6만 병사를 지원받아 왜적을 물리치고 접반관(接伴官)으로 늘 이어송장군 옆에서 생활을 같이하여 나라를 잃을 뻔 했

광역시 · 도 회장단협의회의 개최

현안 논의 및 명승지 등 탐방



전국 광역시 · 도 회장단협의회(회장 갑수)는 지난 6월 7일 갑수회장을 비롯하여 광수, 동경, 태락, 기천, 명수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수림공원가든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종사 현안을 비롯해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화합 단결하고,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이 종사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성원을 위해 독려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천회장의 안내로 영종도 해안둘레길과 소무의도를 관광하는 등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차기 회의는 전북지역에서 개최기로 결의하고 연안부두에서 석식 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던 위기를 해결한 공을 세우신 대표적인 분이다.

한편 탄신제 봉행 전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 가결하였으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양절공(襄節公)[휘 확(確)]의 선영(先塋)에 안장(安葬)되었던 15세 이참

공(吏參公)[휘 건(健)]할아버지의 분묘를 사사동 충정공 묘역(墓域) 내로 이장하였으며, 17세 찬성공(淸 有)의 비문(碑文)이 마멸되어 다시 새겨 수립(豎立)하였고, 묘역 주변 정원수 등의 식재와 묘역좌우 통로의 정비, 사당 · 재실 · 관리사 환경개선 등 기타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상길 총무)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중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조선중기 의병장 한응성(韓應聖)선조



한응성의병장 충의비 전경

청주한문(淸州韓門) 안양공파 18세, 자는 경기(景期), 호는 귀와(龜窩)이다. 청성군(淸城君) 휘 종손(諱 終孫, 14世)의 고손자이고, 대호군(大護軍) 축(軸)의 아들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으며 장성한 뒤에는 처가인 순창 귀미(龜尾)로 옮겨 살았다.

호가 귀와(龜窩)인 것은 귀미에서 파온 것이다.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문하에서 수학한 한응성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 조헌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노비 등 수십 명을 거느리고 금산으로 출전하였다. 적의 세력이 강하자 조헌은 앞일을 예측하고 이르기까지 “오늘 나는 이미 죽음을 결심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는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

함은 곧 나의 본뜻입니다.”하고 분격하였다. 한응성은 곧바로 적진에 뛰어 들어 적 10명을 베고, 700명의 의사와 함께 순절하였는데 이때 한응성의 나이가 36세였다. 노복인 부협(夫脅)이 시신을 거두어 순창 귀미로 돌아와 장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1892년(고종 29) 조정에서 이조참의로 추증(追贈)하고 충신의 정려를 내렸다.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에 한응성 충절비(순창군 향토문화유산)가 있으며, 비석 앞에는 부협의 의로움을 기려 ‘충노 부협지비(忠奴夫脅之碑)’도 세워져 있다.

충남 보령소재 호국사에 임란공신으로 위패를 봉안하고 (사)임란공신충의선양회 주관으로 매년 5월 추모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서원군파종회 회장단회의 개최



서원군파종회(회장 김수)는 지난 6월 4일 김수회장, 상기회장을 비롯 회장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3가 소재 한일장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서원사 사적비 수립에 따른 비문작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종사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김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장단에 감사의 전하고,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잘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 소기의 성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와 협조로 확정 결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사적비의 규격은 7자 오석으로 하고, 비문은 김수회장, 상기회장, 상호일가, 이덕총무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말까지 작성한 후 추후 모임을 통해 검·교정기로 결의하였다. 사적비 제막은 2020년도 서원사 세향일에 맞추고 경비는 17개종파에 균등 배분 조달기로 하였으며 김수회장이 사적비수립 헌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감사를 표하였다.

한장군(韓將軍)놀이 - 경산자인단오제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

한장군놀이는 옛날 왜구가 경산·자인에 침입하여 도천산(到天山)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한종유란 장군이 있어 적을 유인하여 모조리 격멸시켰다는 데서 유래된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의 단오절 단오굿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한장군은 이 지역 단오굿의 중심행사인 여원무(女圓舞·사진)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으로, 1969년 자인단오굿이 조사되고, 그해 가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여원무가 출연하여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설상의 인명이 민속연희의 명칭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자인고을의 전설에 의하면, 왜적이 이곳을 침범하여 도천산위에 웅거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자 한장군이 피를 써 여자로 가장한 뒤 누이와 함께 화려한 꽃관, 곧 여원화(女圓花)를 쓰고 산 아래 버들못 뚝에서 광대들의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러자 왜적들은 도천산에서 내려와 여원무의 신기함과 풍악의 흥겨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 때 가운데서 춤을 추던 한장군은 여원화를 벗고 무서운 장군으로 돌변하였고 광대들도 모두 비수를 든 무사로 화하여 왜적을 무찌르기 시작하였다. 왜적은 하나하나 쓰러져 순식간에 못물은 핏빛으로 변하였는데, 지금도 못 뚝에는

왜적을 벨 때 생긴 칼자국이 있는 바위가 남아 있어 마을에서는 이를 참왜석(斬倭石) 혹은 검흔석(劍痕石)이라 부른다. 그 뒤 이 고장에는 한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생기고 해마다 단오절에 제사를 거행하고 성대한 놀이를 베풀었다는 <한장군놀이>의 유래가 전하고 있다. 조선 중기에는 송수현(宋秀賢)이라는 현감이 새로 진중사를 지어, 한장군을 모시는 한묘(韓廟)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후로도 한장군은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정착되어 현재는 자인면·진량면 등지에 한당(韓堂)이 7개소나 된다고 한다.

이곳의 단오굿은 현사(縣司)가 있던 자리에 모였다가 가장행렬로 진장터 광장까지 와서 여원무를 상재하고 한당으로 가서 제사를 올린 후 다시 현사로 돌아와 고을원에게 여원무를 보이고 해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원화는 높이가 10자나 되며 한장군 남매를 가장하여 오색 채의를 입혀 거대한 꽃귀신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 여원화에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하여 사방에서 물려든 구경꾼들이 최후의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뜯어간다. 단오굿이 끝난 뒤에는 여흥을 돋우고자 말달리기·씨름·그네뛰기 등이 공연된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7년 3월 ‘경산자인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9년 울산광역시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일수회장 재선임

울산광역시종친회(회장 일수)는 지난 5월 23일 울산시 남구 목화예식장 웨딩홀에서 회원 100여명과 내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3대회장

으로 현 일수회장을 재선임 유임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안) 및 금년도 예산(안)을 승인 가결하였다. 일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한층 노력해 나갈 것이며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운영회비(5~6월) 단위:원	
이름	금액
상양 부회장(참판공파회장)	1,000,000
석희 부회장(문양공파회장)	1,000,000
동학 자문위원(경기 고양시)	600,000
창섭 자문위원(경기 안성시)	60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500,000
동수 부회장(중무전담)	500,000
삼랑 부회장(청장년전담)	500,000
연동 부회장(수석전담)	50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500,000
창화 부회장(광주시회장)	500,000
창화 부회장(광주시회장)	500,000
선구 이사(서울 금천구)	300,000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구)	20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000
익수 자문위원(경기 고양시)	200,000
인원 자문위원(충남 논산시)	200,000
동권 운영위원(경기 군포시)	200,000
봉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200,000
판준 운영위원(진도군회장)	200,000
기만 이사(서울 송파구)	200,000
상엽 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달섭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규석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기덕 이사(강원 춘천시)	100,000
도영 이사(인천 중구)	100,000
상렬 이사(서울 도봉구)	100,000
상분 이사(경기 수원시)	100,000

의전 이사(경기 양평군)	100,000
일용 이사(경기 남양주시)	100,000
종인 이사(중앙회상무이사)	100,000
현섭 이사(경기 시흥시)	100,000
현수 이사(경기 고양시)	100,000
합 계	9,900,000

특별헌성금(5~6월) 단위:원	
이름	금액
학자(가정연합회 총재)	50,000,000
합 계	50,000,000

개인정보비(5~6월) 단위:원	
이름	금액
석두(서울 동대문구)	200,000
대수(경북 안동시)	100,000
상웅(울산 동구)	50,000
용수(경기 고양시)	50,000
익두(인천 중구)	50,000
익수 자문위원(경기 고양시)	50,000
진출(서울 서초구)	50,000
창호(대구 서구)	50,000
계봉(경기 화성시)	30,000
남희(충남 청양군)	30,000
상봉(서울 종로구)	30,000
상운(서울 송파구)	30,000
상준(경기 군포시)	30,000
용관(서울 송파구)	30,000
호상(울산 중구)	30,000
경남(부산 서구)	2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20,000
극수(전북 남원시)	20,000
기호 상임고문	20,000
길수(세종시 전동면)	20,000
대석(경기 수원시)	20,000
도영 이사(인천 중구)	20,000
병덕(서울 강북구)	20,000
봉춘(대구 수성구)	20,000
상분 이사(경기 수원시)	20,000
상훈(서울 서초구)	20,000
승우(부산 부산진구)	20,000
양섭(전남 화순군)	20,000
우영(서울 마포구)	20,000
윤기(서울 강남구)	20,000
의전 이사(경기 양평군)	20,000
인우(충남 당진시)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정섭(경기 성남시)	20,000
창윤(부산 사하구)	20,000
현섭 이사(경기 시흥시)	20,000
희왕(전북 군산시)	20,000
기섭(서울 동대문구)	10,000
봉희(서울 광진구)	10,000
상응(충남 태안군)	10,000
합 계	1,280,000

단체정보비(5~6월) 단위:원	
이름	금액
강북도봉구총친회	200,000
진주시총친회	200,000
청주총친친목회	100,000
합 계	500,000

장학금 납부내역(5~6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698	석두(서울 동대문구)	200,000	1,850,000
2173	익두(인천 중구)	50,000	70,000
1761	기준(강원 강릉시)	20,000	310,000
1718	상희(전북 전주시)	20,000	211,000
1729	길수(세종시 전동면)	20,000	11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650,000
1760	봉희(서울 광진구)	10,000	320,000
623	승우(부산 부산진구)	10,000	140,000
2233	상응(충남 태안군)	10,000	10,000
합 계	합 계	350,000	

무강원릉수호대책위원회 헌성금(5~6월) 단위:원	
이름	금액
현령공파종중(회장 기일)	500,000
합 계	500,000

청한산악회 5월, 6월 정기산행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두타연과 정상경관이 아름다운 가리산으로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5월 26일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양구소재 두타연으로 정기총회를 겸한 정기산행을 하였다. 양구군 방탄면에 있는 두타연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유입되는 수입천의 지류로 금강산을 가는 길목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국내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이다.

50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개방이 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생태의 보고인 곳이다. 높이 10m에 폭 60여m의 계곡물이 한곳에 모여 떨어지면 두타폭포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하고 폭포 바로아래에 있는 두타연은 20m의 바위가 병풍을 두른 듯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점심 식사 후 개최된 제22기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한 범석감사 후임으로 창근일가를 새로이 선임하였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조님의 음덕으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회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가운데 안전산행을 이어감에 감사함을 전하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열심



가리산 산행기념

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함께 뜻을 모아 적극적인 홍보와 성원을 통해 중앙회 종사운영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산악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의 경계에 소재한 가리산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해발 1,051m의 고산인 가리산은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첩첩산중의 산세와 발 아래로 펼쳐진 소양호의 아름다운 풍경이 발길을 묶는 곳이다.

우거진 숲과 노송들, 계곡과 아담한 폭포의 물소리가 일상의 지든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며 맞이해 주는 가리산은 일대 305ha의 면적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에 통나무집, 야영장, 체육시설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가족휴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수도권청장년회 친목야유회

여수·금오도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6월 8일 38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일정으로 금오도와 여수일원으로 친목도모와 결속을 다지는 정기야유회를 다녀왔다.

당일 오전 7시 30분 서울을 출발 오후 2시 경 여수 남면소재 금오도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큰 섬으로 숲이 울창하고 기암괴석이 많아 해안선이 아름답고 자리를 닦았다하여 금오도라고 한다. 전체 18.5km에 이르는 5개의 비렁길 코스 중 직포에서 학동으로 이어지는 전망대와 협곡, 명물 출렁다리가 있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3.5km의 3코스를 트레킹한 후 여수 엑스포 인근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식사와 여흥의 시간으로 하루일정을 마쳤다.

이튿날, 첫 일정지, 금오산의 기암절벽 사이에 울창한 동백이 남해의 일출과 어우러져 절경을 빛내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 향일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의 말사(末寺)로 금오산(金鰲山)이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에는 증생이 서원(淸願)에 감응하였다는 감응도, 앞바다에는 부처가 머물렀다는 세존도,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이 화현하였다는 미타도가 있다. 커다란 돌들이 입구가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며,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평평한 곳을 골라 전각을 만들고 그런 곳들은 고스란히 남겨두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해안가 수직 절벽위에 건립되었으며,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 등 아열대 식물들과 잘 조화되어 이 지역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 향일암은 우



금오도 관광기념

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낙산사 흥련암, 남해 금산의 보리암, 강화도 보문암, 여수 금오산 향일암)중 한 곳으로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두 번째 일정, 바다 위를 지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여수해상케이블카 탑승.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바다 위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로써, 바람을 가르며 짜릿한 스릴감과 함께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여수의 특산음식 중 하나인 갈치조림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실제적 배경이 되었던 하동의 최참판댁과 화개장터를 둘러 귀경길에 오르면서 2일간의 소중한 야유회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상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조님의 음덕으로 많은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야유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함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청장년회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했다.

문열공부군 춘향제 봉행 및 임시총회 개최

기천신임회장 및 감사 등 임원 선임



문열공부군(12세.휘 尙質)의 춘향제가 지난 5월 1일(양력, 기준 4월 5일에서 금년도부터 변경) 문열공파종중의 상익회장을 비롯 선교회장 등 5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진동면에 소재한 문열공부군의 묘소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선교총성공파회장, 아헌관에 동수문간공파회장, 종헌관에 등희총성공파역삼종중회장, 축관에 태수이사가 분방되었으며 도영총무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당일 제례봉행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익회장의 후임으로 기천신임회장을 선임하였다.

한편 문열공파종중(회장 기천)은 지난 6월 19일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수립공원가든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영교, 경택), 부회장(선교, 용진, 기정)을 비롯 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신입임원을 선임하였다.

기천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문열공부군 후손의 화합 단결과 우애를 돈독히 하고 전국의 후손들을 찾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삼한갑족이자 명문거족인 청주한씨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종손으로서 본이되는 행동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독려하였다. 회의 후에는 영종도 해안과 무의도, 연안부두 일대 등 관광과 식사 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문정공 배위 정경부인 함양여씨(咸陽呂氏) 불천위(不遷位)제 봉사

성남시 분당구 울동 문정사(文靖祠)에서



지난 6월 20일 (음 5월 18일) 8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 울동에 소재한 문정사(文靖祠)에서 문정공(諱 繼禱)의 배위인 정경부인 함양여씨(貞敬夫人 咸陽呂氏, 1455년 음 5월 18일卒)의 564주기 기신제(忌辰祭)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 춘섭(전)성남문화원장, 아헌관 규동사숙공추모회장, 종헌관 양호일가, 문정공할아버님은 근검절약(勤儉節約)과 제민구휼(濟民救恤)정신으로 녹봉은 물론 공신전 등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韓)정승이 사시는 곳인 고암리에 가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세간의 전함으로 후일에 안암동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크게 일조하신 할머님이시다. 할아버님께서 임금을 잘못 모시어 백성들은 하루 한 끼도 못 먹어 굶어죽는

자가 속출하는 시절에 어찌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랴 하시고는 아침에는 서숙밥(조밥)과 저녁에는 서숙죽(좁쌀죽)을 잡수시면서 점심은 황경나무 껍질을 씹는 것으로 대신하셨다니 할아버님의 심경을 이해하시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오죽 황당하셨을까! 정승의 반열에 계시면서 청백리(淸白吏)의 도리를 잊지 않고 몸소 실천하신 할아버님으로 인하여 가난을 면치 못 하시면서도 네 분의 자식들에게 군자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 훗날 부끄러운 오명 없이 훌륭한 선비정신으로 자기 개척을 한 분들로 명성을 남기게 키우신 운후하면서도 법도를 제일의 덕목으로 실행하신 선구자적인 맹렬 여성이셨다. 그러한 할머니 덕에 문정공께서는 졸기(卒記)에 성인의 반열의 인물로 평가받으신 조선왕조 상신중에 유일한 분으로 추모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 집행부 임원회의 정례화



중앙총친회(회장 추태)는 수석부회장(연동) 및 제전(태락), 종무(동수), 청장년(삼랑)부회장이 선임됨에 따라 집행부 임원회의를 월 2회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 임원회의는 주요 현안 및 추진과업 등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의 수렴과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종사운영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인천광역시종친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천식회장 선임



인천광역시종친회는 지난 6월 28일 관회, 상기, 창설고문을 비롯 임원과 종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소재 디펠리스웨딩컨벤션에서 제51회(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임기가 만료된 기천회장 후임으로 천식(天植)신임회장을 선임하였다. 천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인천시종친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초심의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종원분들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으로 종친회를 사랑해 줄 것을 독려하고 당부하였다. 종친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애써 수고한 재국(전)강화종친회장에게 공로패, 한인산약회 김영순회원과 김종만 회원에게는 각각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오찬에 이어 밴드와 초청가수의 공연 후 노래자랑 시간으로 흥겨운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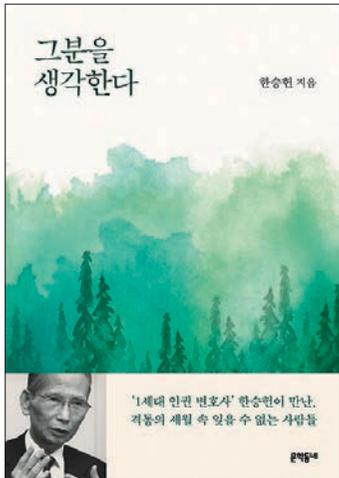
(인천종친회 사무처장 희숙)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와 각 지역종친회의 행사, 임원 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편집실>

승헌(勝憲)고문 「그분을 생각한다」 발간

27명의 잊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진솔하게 술회



‘1세대 인권 변호사’로 대표되며 감사원장을 역임하신 중앙회 승헌고문은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고 민중화, 인권운동에 매진했다. 남정현의 ‘분지’ 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간첩단 사건, 월간 ‘다리’ 사건 등 한국현대사 속 굵직한 사건들의 변론을 도맡았던 27명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지난 5월 출간하였다.

승헌고문이 펴낸 ‘그분을 생각한다’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며 헌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길을 지키며 살아간 ‘그분’과의 추억을 진솔하게 술회하였다. 거례의 스승 함석헌선생을 비롯해, 한국 엠네스티 초대이사장 김재준 목사, 동백림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응노화백과 천상병시인, ‘광주의 어머니’ 시민운동가 조아라선생, 북한에서 만난 고교 선배 인민예술가 정창모화백, 김대중,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 등 국경과 지위 고하, 남

녀를 막론하고 한국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거목들과 지근거리에서 교유했던 한승헌변호사.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난 그들의 삶을 내밀한 부분까지 전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이 바탕이 됐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접한 인물 중에는 메마르고 야속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사서 고생 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삶을 널리 알려서 독자 여러분의 인생역정에 아름다운 도반(道伴)으로 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유명인사들의 평전이나 일대기는 아니다. 다만 내가 직간접으로 교감한 인물들과의 접점과 경험을 사실대로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물이나 행적에 어떤 미화나 윤색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삶의 민낯 그대로가 우리에게 티 없는 깨달음을 주는 터여서 인공적 성형은 오히려 진실과 시계(視界)만 흐려놓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 인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한 인물이 처했던 시대상황과 삶의 행보를 원경(遠景)으로 넓게 잡고, 이어서 저자가 직접 교감하고 확인했던 인간적 측면을 근경(近景)으로 잡아 써나감으로써 전인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힘썼다. 세상을 바로잡겠다며 헌신한 인물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바른길을 지키며 살아간 분들, 그들이 보여준 삶의 실체와 교훈을 널리 알리는 데 이 책이 기억과 깨달음의 각성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였다.

忍之爲德 [인지위덕]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순풍에 돛단배 같이 만사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불쾌해지고 언짢아지는 일도 많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며 사는 것이 인생살이다. 특히 불쾌해지지는 일은 어디서건 발생한다. 가정생활에서는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 고부 간에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는 불쾌해지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직장에서는 동료 간,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 고객과의 사이 등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 인간사이기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가느냐에 인생살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삶에서 참(忍)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이유다. 인위지덕(人爲之德). 참는 자에게는 적(敵)이 없다고 했다.

‘쥐 잡으려다 장독 깨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게 평정심을 잃었을 때 그 화가 결국 자신에게로 돌

아온다는 말이다. 사람은 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때도 많다.

그러나 노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인지위덕(忍之爲德)」 참는 것으로 인하여 덕을 이룬다는 말이다.

참는 동안은 수모를 당한 것처럼 느끼지 모르나 시간이 흐를수록 승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큰일을 그르친 사례는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가 참지 못한 경망스러움 때문에 나라를 망친 사례도 적지 않다.

치열한 경쟁시대의 후유증인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는 다는 덕목을 팽개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라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은 ‘인지위상(忍之爲上)’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좋은 글 중에서)

6·25 전쟁영웅 故한정일 곡성서장 동상 제막식

곡성 경찰전승탑 역내에서, 경찰청장 등 참석

지난 6월 18일 전남 곡성군 압록교소재 경찰전승탑 역내에서 민갑용경찰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전물경찰유족, 청주한씨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영웅(2015년 보훈처지정) 故한정일 곡성경찰서장의 호국정신과 그 위훈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민갑용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위급한 전황으로 철수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대를 조직하여 압록교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을 높이 치하하였다.

당시 호남지방을 점령한 부대는 북한군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으로서 중국국공내전에 참여하였던 동북의용군 제166사단을 재편성한 부대로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기동전에 능했던 부대이다. 6·25 남침 시 개성축선을 돌파하여 큰 저항 없이 이리까지 점령하고 부대를 연대단위로 분리, 진격해왔다. 1연대는 20일 전주, 24일 남원과 구례, 25일 순천과 여수를 점령했고, 13연대는 24일 함평과 목포를, 15연대는 22일 고창, 24일 나주와 광주를 각각 점령한 후 하동과 진주방향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전남도경은 7. 24. 점령지역 경찰철수명령을 하달하였으나, 한 서장은 “주민을 뒤에 두고 철수할 수 없다”며 경찰과 의용대원들을 설득, 지원자 중심 전투병력 520명으로 곡성전투경찰대를 편성, 태안사 내에 경찰지휘본부 설치하였다. 7. 29. 순천에서 하동방향으로 이동 중인 적 1개 대대가 압록교 주변에서 숙영중인 것을 기습 공격하여 사상 52명, 생포3명과 트럭 4대를 포함한 장비 70여점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8. 6. 태안사에서 여명을 기하여 적 1개 연대가 포위 공격해와 치열한 격전 끝에 애석하게도 우리 경찰관 48명이 전사하였으나 낙동강 전선의 서쪽인 하동, 진주 방어부대가 없었던 미8군에게는 상주에 주둔한 미 제25사단을 긴급 투입할 시간을 갖도록 해준 지연전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후에도 지리산과 광양 백운산 등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 많은 전과를 거양하였다.

故한서장은 派祖 恭安公의 孫 의금부도사 세전(世孫, 16世)이 연산정난 시 父



한정일곡성서장 동상



동상 제막식 후 기념촬영

참판공과 함께 지봉성현(구례군)에 가피하였다가 중종반정 후 상경하지 않고 은둔하였던 500년 世世孫孫 一寸을 이룬 유서 깊은 청주한씨 세거지인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에서 舊양절공과 종친회장과 삼재관리위원장을 역임한 31세손 계수의 장남으로 출생, 경찰에 입문하여 여러 전공을 세웠고, 화랑무공훈장 등 7개의 훈포상을 수상하였으며, 향년 73세로 별세하였다. (공안공파종중 한공진)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에서는 어떤 책자의 구매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중앙종친회를 사칭, 책자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중앙종친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 조형물 개수 제막식 행사 안내

- 일시: 2019년 9월 28일 (토) 11:30 (문중 입장 퍼레이드 행사 후)
- 장소: 뿌리공원 37번 구역(대전시 중구 뿌리공원로 79 (침산동))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